

## 20~30대 남녀 소비자의 속옷태도와 구매동기의 관계연구

강 지 혼\*(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환경학과 석사)

고 애 란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환경학과 교수)

본 연구는 20-30대 남녀 소비자의 속옷에 대한 구매동기에 따른 집단의 특성을 비교 분석함에 있어, 속옷태도와 소비가치 및 감각추구성향, 속옷구매행동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에서는 먼저 속옷구매동기를 추출하여 하위요인에 따라 소비자 집단을 세분화하였고, 세분된 집단의 구매동기요인 문항의 평균값에 따라 집단의 특성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유형화된 집단별 속옷태도의 차이와 심리적 특성인 소비가치, 감각추구성향의 차이와 연평균 속옷비용, 속옷구입주기, 구입장소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20~30대의 남녀 4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SPSS 10.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방법으로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검사, 군집분석, 일원분산분석, Duncan test,  $\chi^2$ -test를 이용하였다.

각 변수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구매동기의 경우 기분전환/충동구매, 안락/심미적 구매, 경제적 실리, 실질적 구매필요의 4개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었고, 속옷태도는 속옷관심, 심미/고급지향, 편안함 추구, 자기만족, 정숙성, 관리의 편의성, 소비가치의 경우 진귀적 가치, 실용/기능적 가치, 과시/사회적 가치, 주관/심미적 가치가 도출되었다.

구매동기에 따른 소비자 집단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구매동기의 하위요인에 따라 소비자를 세분한 결과, 비계획적 자기만족형, 경제적 실리추구형, 소극적 구매형의 세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구매동기에 따라 구분한 소비자 집단 간의 속옷태도 요인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속옷관심, 심미/고급지향, 편안함 추구, 정숙성, 관리의 편의성 요인에 있어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구매동기에 따른 집단 간 소비가치와 감각추구성향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비계획적 자기만족형 집단과 경제적 실리추구형 집단과는 실용/기능적 가치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극적 구매형 집단은 모든 평균 점수에 있어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감각추구성향은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외 구매동기에 따라 구분된 집단 간 연 평균 속옷비를 비교한 결과, 비계획적 자기만족형 집단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경제적 실리추구형 집단, 소극적 구매형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